돌이드러온다는방포이랍니다
한참잇다가아닙게아니라장사여섯명이호랑이를만히
잡아가지고돌어왓습니다
「할머님」왜오늘은이러케들늣게드러오느냐?
「장사」오늘은호랑이가만이잇서서다잡지도못하고
고생만햇습니다밥이나주세요그런대저것들은무엇하
는사람들인대남의집에막드러와안젓습닛가
「할머님」그사람들은길가든사람으로그이들도六兄
弟란다그런대날이저물어서묵어가라고햇다
「뚱뚱」저이들은길가든사람인대날도저물고또이집
에유명한장사들이잇단말을듯고차저뵈려왓습니다
「장사」그래우리보고무순할말이잇소
「뚱뚱」다른별말은업스나우리도六兄弟인대힘과재
조도만아서당신들과무순내이물해보려고왓는대우리
六兄弟와당신六兄弟가엇던편이재조와힘이만은가내
이물해봅시다
「장사」이런되지못한놈들조고만놈들이내이가다무
엇이냐이장사들은꾀만하기짝이업고약한사람은막때
려주기만하는낫분놈들입니다
「뚱뚱」별말할것업시한번해보자첫재에우리쓰름을
해보자그래서쓰름을해본결과뚱뚱이편이이겻습니다
그러닛가그때야장사네편이분이나서
「장사」우리다른것을해보자고하엿습니다
우리저산에제일큰나무가두개가잇는대그나무를한아
씩맛하가지고그것을누가먼저짤나서장작을만드러면
저묵거놋키로하자
「뚱뚱」그것좃타그럼지금부터시작한다장사네편들
은독기를가저온다톱을가지고와서짤르느라고분주하
다뚱뚱이편은잠만자고잇습니다
「장사」저놈들은잠을자닛가그동안에우리가먼저해
노코저놈들을경을처노차하고짜르고잇슬때에뚱뚱이
가이러나서
「뚱뚱」고만들자고가보자하고모도이르켜가지고보
닛가겨우나무를쓰러트려노왓습니다
「배뚱뚱」애야독기팔아불럿습니다
「독기팔」네-졸려죽겟는대왜부르십닛가
「배뚱뚱」이나무를짤라서장작을만드러노와라우리
는독굴허이니
「독기팔」네하고팔로한번치닛가나무가넘어갓습니
다그냥전속력으로장작을패노코보닛가장사꾼들은아직

도반도못팻습니다
「배뚱뚱」여 보무엇들을하오우리는잠을실컷자고도
널서패노왓소그거보시오당신네들이또젓지요
아주새지 남앗답니다」하고
쌋가지를놓고 방긋이 웃옵니다

一九五三年十月十日

꽃파는 少女

東京 朴 長 順

나는 엇던 동모와가치
花月園 가는길에
總持寺를 드러가다
꽃파는 少女를 보앗습니다

「아아 어엽부고 아름다운
꽃파는 少女여
그대의 그꽃은 누구의게파는가」
가만가만히 무러보니

「넷날의 넷날넷적 부처님계실때에
부처님께 꽃供養올니든美風